

수필집

하
늘
을

남
면
서

박
동
하
저

연변인민출판사

◇수필집◇

하늘을 날면서

박동하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룡길

책임교정: 남금월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翱翔蓝天: 朝鲜文 / 朴东河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6

ISBN 978-7-5449-0636-4

I. 翱… II. 朴… III. 随笔-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94270号

翱翔蓝天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25 字数: 1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36-4 (民文)

版次: 2009年6月第1版 2009年6月第1次印刷

印数: 350册 定价: 13.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작자의 말

수필을 쓴다는것은 자기의 지나온 나날을 되돌아보면서 보고 겪은 느낌을 표현하는 글짓기이기에 진정한 자기 문학이라 하겠다. 그러니 크고 찬란한 삶보다 오히려 작고 인상 깊었던 생활의 한 측면으로부터 가슴을 치는 느낌을 쓰는 작업이 곧 수필이 아닐가 생각된다.

우리는 인생을 섭렵하면서 느낀 인상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군체속의 일원인 나 역시 숨찬 생활이 안정되면서 뒤늦게나마 그런 인상적인 일들을 정리하여 글을 지어 묶어보았는데 다름아닌 이 수필집이다.

그런데 수필이 시적요소와 소설적인 기교, 철학적인 철리,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예술이 담긴

2 / 하늘을 날면서

문학이라 할 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가끔 자문에 빠지곤 하였다.

수필에 먹칠하는것이 아닌지, 자신이 느낀 관조와 반초가 수필을 쓰리만치 격조높은것인지, 수필로서의 인품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러나 이제라도 잡초가 무성한 마음의 황무지를 갈아엎고 생의 나무를 올곧게 키워 건설한 열매를 맺고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쓴 글이지만 미흡한 수양과 수준으로 하여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 독자들에게 미안함을 밝히고싶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수필집을 내놓으면서 “의사소통이 사랑인것”처럼 모든 독자들에게 “날아가는 비둘기에 쪽지 전하듯”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 수필집 출간을 위해 여러모로 걱정해주신 연변아동문학학회 김현순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작품집 출간을 주선해주신 연변인민출판사에도 감사함을 전한다.

2009년 6월 5일

박동하

차례



작자의 말	1
산	1
바다	6
나무	10
대추나무	13
나무잎	17
락엽진 백양나무	20
하루살이	23
매미	25
개	30
라이라크꽃	34
장미꽃	37
꽃	40
해바라기	44
감자	47
손	50

2 / 하늘을 날면서

발	54
문	57
눈	62
달	65
하현달	67
별들	70
하늘을 날면서	72
청중이 없는 노래소리	77
죽마고우를 그리며	80
신념	84
서가와 함께	88
술 마시던 그때 그 시절	92
자리지킴	95
홀어져 살고있는 가정	99
합수목을 바라보며	103
비닐박막온실에서	106
자유를 잃은 닭	110
건강길	114
도연명	117
명함장으로 본 인격	121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	124
동심이 울리는 글을	128
남과 다르게 되라	132
그리움	137



아버지	142
안해의 환갑날	146
큰절을 받으며	150
사랑의 공동체	154



산

나는 시골사람이 돼서 그런지 바다보다도 산을 더 좋아한다.

물론 창망한 바다위에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그리고 아득히 멀어져가는 돛배를 바라보면 한폭의 그림 같아서 서정에 푹 잠기게 된다. 그러나 바다는 어디를 가든지 비슷하다. 북대하의 바다나 해운대의 바다, 해남도에서 본 바다나 제주도에서 본 바다가 엇비슷하다.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에서 너မ်실거리는 그 파도나 이 파도나 사시장철 다 그 모양새가 어슷비슷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산은 그렇지 않다. 어디를 가보아도 같은 산이 없다. 산의 모양이 다르고 산에 올라가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다르다.

2 / 하늘을 날면서

산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웅산(雄山), 고산(高山), 악산(岳山), 야산(野山) 등으로 부른다. 그러니 이산저산 다닐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느낌이 든다. 웅산에 오르면 가슴이 설레이고 고산에 오르려면 힘겨웁고 악산에 오르면 공포감을 느끼며 야산이면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된다.

같은 산이라 해도 철에 따라 변화가 무쌍하다. 봄에는 연록색의 옷을 입고 부드러운 모습이다가 여름에는 짙은 록색의 깊은 숲으로 변하고 다시 붉은 색깔과 노란색의 가을산으로, 그리고 눈 덮인 하얀 겨울산으로 변한다. 그러다가 한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울부짖고 얼음산으로 된다.

해빛이 포근하던 록음산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치면 나무와 바위가 울어대고 골짜기물이 넘실대면서 무서운 산으로 변한다.

이처럼 모양이 다르고 변화무쌍한 산은 등산객에게는 정복의 대상이다.

한번 등산해보라.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감에 가슴이 흐뭇해난다. 오르기 험난했던 등산일 경우 산마루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하다. 산마루에 올라서면 마치 하늘에 오른듯 시야가 한없이 넓어지고 세계가 그만큼 더 커져보인다. 지금까지 간혀있던 좁은 세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오르지 않고 바라보는 산과 오르고난 뒤 바라보는 산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창함과 더불어 아름다움이 있으니 등산객들이 어찌면 생명까지 걸어놓고 그 고생을 사서 하는게 아닌가.

산에 오르는 그 고생이 없이 어찌 기쁨이 있겠는가. 그러니 그 기쁨을 바라고 산에 오르는 괴로움의 자체가 곧 기쁨이 아니겠는가. 등산객들이 이런 즐거움을 알기에 산에 오르고 고생을 치르면서도 전혀 후회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산에 갈 때마다 느끼는것은 고요함, 엄숙함, 신비함에 잠겨 마음이 고요해지는것을 경험한다. 이때면 자연히 사색하거나 명상에 잠기지 않을수 없다. 산은 곧 사색과 명상의 고장이다. 대부분 옛 절들이 도로나 마을에 있지 않고 깊은 산속에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바다에서는 젊은이들이 벌거벗고 날뛰지만 산은 원초적인것과는 달리 사색적이라는데서 많은 위인들의 활동무대이기도 하다.

단군을 이야기할 때는 태백산을 이야기하고 서산대사를 이야기할 때는 묘향산을 떠날수 없다. 령험하다는 백발신선도 산을 떠날수 없고 나라를 잃은 울분을 달랠 길 없는 백이숙제도 수양산에서 은거생활을 하다 죽지 않았는가.

4 / 하늘을 날면서

또 산이 사색적이고 명상적이라고 하는것은 산에 깊이 들어갈수록 신비로움을 느끼기때문이다.

숲과 새들이 있고 맛갈스럽고 시원한 샘이며련못이 있는 산, 바위는 바위대로, 푸른 잎은 푸른 잎대로, 산열매는 산열매대로 모두 저마다 정답게 모여 살고있는 산. 보라, 숲이 설레이는 청산은 말이 없고 숲속의 풀벌레울음소리만 귀맛 좋게 들려오는데 흰구름은 가끔 가던 길 멈추고 인간세상을 내려다보고있지 않는가. 일체가 화합한 세계이다.

나무를 보고 바위에 바라오르고 골짜기를 건너 오솔길을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을 때 내가 나무가 되고 구름이 되고 산속에 묻혀서 내가 자연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장중하면서도 무거운 침묵속에 잠겨있는 산마루에 올라 “야호!—” 하고 웨치면 다시 메아리쳐 화답해주는것이 산이다.

산으로 가자! 상쾌한 산바람을 맞으며 산새들을 따라 자유로운 평화지대—그 숲이 우거진 나무 그늘아래로 가서 명상에 잠겨보라. 숲은 설레이고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도 깊어질것이다.

“살어리랏다,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를 부르면서 이산저산 넘나들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바 다

망망한 바다

깊이도 무게도 잴수 없는 하나의 크나큰 물방울이면서 모든 물방울이 뒤엉켜진 바다. 룩지우에 바다물이 괴여있는지 바다우에 룩지가 떠있는지 알바 없다.

아무리 떠낸다 해도 고기만 넘겨줄뿐 바다물은 인츰 그대로 보충된다. 칼로 베면 금시 아물고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삼키고는 태연하다.

바다는 어떠한 힘으로도 손상시킬수 없다. 바다는 비에 젖지도 않고 불태워버릴수도 없다. 쇠성벽력도 아랑곳 않고 풍화작용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너그러운 품인 바다

바다는 거침없이 펼쳐진 망망대해라 하지만 그 품속에는 온갖 생물들이 숨쉬며 제 삶을 즐기고있다.

온갖 물고기들이 너의 품에서 헤엄쳐다니고 조개, 전복, 게 등속들이 너의 품속에서 기어다니고있다. 우렁이, 해삼 등 족속들은 너의 품속에 매달려있고 온갖 해초들과 진주, 산호들은 너의 품을 고운 무늬로 장식해주고있다.

너는 수십만 종류에 달하는 생물들의 보금자리요, 운동장이기도 하다.

대범한 바다

너는 항상 푸르게 넘쳐나는 물로 수면을 가득 채우고있다. 비가 오지 않은들 어떠랴, 강물이 줄어든들 어떠랴, 수면이 낮아진들 어떠랴, 수증기가 날아오른들 비가 퍼붓는들 대수랴. 항상 푸른 물 그대로 충족되고있는데야. 너는 틀거지가 대범하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오로지 평등의 수평선만 요구한다.

량만적인 바다

해별이 따뜻하고 바람이 일지 않으면 해면은 초록빛얼굴과 푸른 가슴을 헤치고 고요히 누워있고 파도는 유연하고도 잔잔한 가락으로 모래불기습과 이야기하듯 철썩거린다.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물결은 모래를 말없이 스쳐내린다. 그 누구의 발자국인지 저 물결에 씻겨지면서 없어진다. 아마 인생이란 결국 물가 모래우에 찍어놓고 가는 허무한 기록이라는것을 말해주는듯싶다.

그런데 이런 유연한 해면이 군세를 과시할 때 보면 그야말로 장관이다.

저 수평선쪽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큰 이랑을 짓고 담을 뛰어넘어오듯 밀려온다. 물머리는 기습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되 한결같지가 않아 어떤 파도는 높이 솟았다가도 킁춤하면서 그대로 서서히 넘어가는가 하면 성난 파도는 하늘높이 치솟다가 왈각 무너지면서 바위를 뚫다 치면서 산산이 부서지기도 한다. 쏜살같이 달려오는 파도가 바글바글 끓기도 하고 비비닥거리며 용을 쓰는걸 보면 천군만마가 질주하듯 천지를 진동시키고있다.

이처럼 외부의 변화에 예민하며 늘 한결같지 않은 거기에 유연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장엄함이 합주되면서 바다의 량만이 넘쳐나고있다.

지금 이 시각 무한한 창공과 맞대여있는 저 수평선에서는 붉은 노을이 서서히 물러서고 동쪽 하늘가에서는 유정한 달님이 얼굴을 내밀면서 웃음짓고있다. 희미한 달빛아래에서 반짝이는 은물결우에 쪼각배 한척이 하느적거린다. 별님은 룡왕의 아가씨를 띄여내려고 파란 눈을 깜박거리는데 갈매기가 흰 날개 너울거리며 무희같이 춤을 추고 있다.

바다가에 서있는 나는 이 황홀한 정경에 내심 뉘이 아득해질뿐이다.

